

가족 역사 웹 사이트가 개설됨



교회의 가족 역사 신규 웹 사이트의 개설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가족 역사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을 통해 교회의 신규 웹 사이트인 www.familysearch.org에서 거의 4억 명에 달하는 사망자들의 계보 정보를 무료로 찾아 볼 수 있게 되었다.

5월 24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솔트레이크시티 가족 역사 도서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수년간 놀라운 발전을 거듭한 컴퓨터 기술로 말미암아 계보 기록을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고 온라인이나 콤팩트 디스크를 통해 정보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우리의 숙원대로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역사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몇가지 종류의 자료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관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4월 1일부터 이 웹 사이트를 시험 운영해 왔는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사용자들은 아낌없는 감사를 표시했습

니다. 그 때부터 어떠한 광고나 홍보 활동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이트는 2억 번을 상회하는 접속 횟수를 갖게 되었고, 인터넷상에서 가장 많이 찾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힝클리 대관장은 기자회견 중에 이렇게 말했다. “가족 역사를 이해하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단합과 유대감이 한층 강화됩니다. 젊은이들이 과거를 이해하게 된다면 뭔가 바라보며 살 것, 곧 존경할 만한 유산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같은 일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자 회견은 인공 위성을 통해 워싱턴 디시에 모인 기자들에게 동시 방송되었다. 워싱턴에서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가 말했다. “자신들의 시조와 뿌리와 조상들을 알아내는 일에 관심을 가진 전

세계의 가족이나 사람들에게 이 날은 매우 역사적인 날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서도 전세계의 계보 찾기 노력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이 훌륭한 웹 사이트를 출범할 수 있게 된 것은 역사적인 쾌거이며 놀라운 특권입니다.”

가족 역사부의 집행 책임자인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이 새로운 계보 찾기 서비스는 사람들이 웹에서 자신들의 계보를 찾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놓을 것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작업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자원자들이 이미 웹에 오른 개인 홈페이지는 물론 방대한 자료를 갖춘 사이트에 이르기까지 수천 개의 계보 데이터베이스를 일일이 확인하고 그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특성과 서비스

- 이 웹 사이트의 새로운 검색 엔진은 사용자가 교회의 온라인 상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구체적인 성명과 관계에 대해 검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상에는 조상철과 국제 계보 색인의 일부가 실려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로 확장되어 갈 것이다.

- 교회 자원자들에 의해 일일이 확인된 수천 개의 독자 계보 웹 사이트를 또한 검색 엔진을 통해 진일보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관심있는 개인이나 그룹, 단체, 회사는 자신 또는 타인의 웹 사이트가 포함되도록 추천할 수 있다.

- 사용자들은 세계 최대의 계보 도서관인 교회 가족 역사 도서관의 색인 목록에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다. 이 도서관은 마이크로 필름, 마이크로 필름 카드, 도서 3백만 권을 소장하고 있다. familysearch.org를

사용자들은 www.familysearch.org 홈페이지를 통해 곧바로 조상들을 찾거나 다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통해, 전세계 3,400여 가족 역사 센터에서 대부분의 자료를 실사 연구를 위해 주문할 수 있다.

- 웹 사이트를 통해, 사용자들은 조사한 것을 함께 나누며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동일한 가계를 조사하는 일을 온라인 상에서 공동으로 할 수 있다.

- 사용자들은 후손들이 색인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를 통해 전자 파일로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가족 역사 정보를 보존할 수 있다. Pedigree Resource File이라고 명명된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가 제출한 가계 뿐만 아니라 출판된 가족 역사나 정부 문서를 비롯한 다른 출처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편집한 것이다.

- 사용자는 선택에 따라 가족 역사 자료를 검토할 수 있다. 출판물, 소프트웨어, 컴팩트 디스크 등을 교회에서 구입할 수 있다. 또는 교회의 믿음과 교리에 대해 더 배

울 수 있다.

예기치 못했던 요청

familysearch.org 웹 사이트는 하루에 2천 5백만 건의 접속을 처리하도록 고안되었다. 그런데 사이트가 공식 출범한 후에 하루 평균 접속 횟수가 4천만 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대략적으로 40만 명의 사용자를 나타내는 수치이며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한 건수만도 6천만 건에 이른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사용 빈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이트에 로그인하는 데 지체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회 기술진은 시스템 개발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과부하를 분산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 사이트를 공식 개설한 초기에 관심이 증가된 이후, 사이트를 찾는 횟수가 하루에 평균 2천만에서 4천만 건에 달하고 있다. □

보조 조직에 대한 조명

봉사가 개종과 지속적인 활동에 미치는 힘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최근에 한 자매가 자신의 개종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 성장기에 줄곧 병원에서 지내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우리를 키우고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러한 생활이

아버지와 저희들에게 결코 쉽지 않았습
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랑스런 말일
성도 자매님을 알

게 되었는데, 그 분은 빵을 구울 때마다 매번 우리 가족에게 빵 한 덩어리를 보내 주셨습니다. 과일을 병조림할 때마다 우리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 분은 우리가 집을 비운 사이에 종종 건너 오셔서 집을 깨끗이 청소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교회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살아 계실 때 아무도 교회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모범 때문에 우리 오누이 네 명 모두가 현재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분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강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어떻게든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마태복음 10:39) 우리는 모든 상호부조회 자매들에게 다른 사람을 봉사하는 일에 자신을 잃게 되도록

권유합니다. 참된 우정과 봉사는 개종과 지속적인 활동화 노력에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자매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주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준비하신 사람에게 인도되도록 간구한다.

- 비회원이 교회 가족 역사 센터에 있는 자료를 통해 조상에 관해 배우도록 돕는다.

- 새로운 개종자를 방문하고 헌신적인 방문 교사가 지명되도록 확인한다.

- 구도자와 새로운 개종자들과 교회 모임 및 활동에 함께 간다.

- 새로운 개종자가 강한 자매들과 함께 열성적인 봉사 활동과 다른 활동에 참여하도록 팀 편성을 한다.

힐러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불쾌함을 겪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는 거만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법은 우리 자신의 생활에서 보이는 선함입니다."(양을 찾고 먹이라, 리아호나, 1999년 5월호, 118쪽)

상호 향상회 : 선교 도구

본부 청년 회장단

상호 향상회는 활동이 저조한 회원이나 구도자에게 영적인 문을 열어주는 선교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호 향상회 모임을 가지면서, 청소년들과 역원들은 일요일에 교회 참석하기를 꺼리는 청소년들과 우정 증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상호 향상회 모임이 잘 계획된 가운데 교회 순서와 의미 있는 활동을 함께 갖는다면, 청소년들이 주님의 영을 느끼고 자신들이 사랑받고 받아 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 순서는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를 통해 찬송가를 배우고, 말씀을 하고, 재능을 나누고, 주님의 영이 함께 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상호 향상회는 또한 복음대로 사는 것이 기운을 북돋우고 재미를 느끼게 하는 행복한 추구임을 실증해 보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교와 가정, 그리고 생활의 모든 면에서 지속될 우정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시간입니다. 상호 향상회는 미래의 젊은 지도자들을 위한 훈련장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폭넓은 다양한 책임을 맡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누비이불을 꿰매든, 축구를 하든, 뮤지컬에서 노래를 부르든, 주님의 영광 사랑과 받아 들임을 느낀다면, 상호향상회는 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가치 있는 모임이 될 것입니다.

상호향상회는 참석자에 따라 그에 맞게 변해야 합니다. 음악과 드라마와 스포츠와 가정 예술과 봉사과 다른 활동이 조화를 이룰 때, 청소년들은 그들의 앞날에 유익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청남·청녀 활동이 주일 학교 공과에서 배운 원리들을 강화할 때, 그러한 활동들은 청소년들의 삶을 강화시키고 그들이 미래를 그 위에 세울 수 있는 굳건한 토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의 조언을 따르면, 그들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무언가 책임지고 할 일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양육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에 관한 생각,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선교 사업, 성도의 벗, 1998년 1월호, 49쪽) 상호향상회는 이 위대한 일을 수행하는 데 강력한 영향력일 수 있습니다.

초등협회의 일 - 어린이를 개심시키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도록 도움

본부 초등협회 회장단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마가복음 10:14) 어린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개심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시작됩니다.

2000년에 우리는 침례의 중요성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개심하는 것은 어린이가 침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침례 성약을 지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이해할 때 시작됩니다. 어린이들이 주님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구세주를 향한 그들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일 때 그들의 개심은 계속됩니다.

어린이들은 소중한 새로운 개종자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모든 개종자들에게 친구와 책임을 주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모로나에서 6:4)으로 양육하라고 격려했습니다. (개종자와 청남, 성도의 벗, 1997년 7월호, 47쪽)

초등협회의 모든 아이들과

성인 지도자 및 교사들은 힝클리 대관장이 제시한 이 세 가지 축복을 받음으로써 강화될 것입니다. 초등협회는 이러한 축복을 실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곳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중요한 일에 참여하기 위해 초등협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결정하십시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 초등협회에 등록된 모든 어린이들이 참여하도록 초대한다.

- 초등협회에 참석하고 봉사하는 모든 사람이 친구와 책임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활동과 주일 공과를 준비한다.

- 초등협회의 모든 어린이들과 성인 직원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어린이들이 간증을 키움으로써 개심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도록 돕는 것이 초등협회의 일입니다. 초등협회가 안전하고 행복한 장소가 되도록 하여 어린이들과 초등협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직원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교회 회원이 된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의 가치

본부 주일 학교 회장단

1999년 4월 1일에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과 본부 주일 학교 회장단은 1949년에 데저렛 주일 학교 유니온 관리단에 의해 밀봉된 타임 캡슐을 열었습니다. 상자안에는 주일 학교 사진들과 교재와 역사적인 가치를 가진 여러 물품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자에 있는 물품들을 살펴 본 후에, 힝클리 대관장은 올해 하반기에 새로운 타임 캡슐을 밀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새



로운 타임 캡슐은 50년 후에 개봉될 것입니다.

주일 학교는 그 자체로 일종의 보물 상자 와도 같은 타임 캡슐과 흡사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다 우리가 봉사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봉사로부터 복음에 대한 더 나은 지식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하는 충실한 봉사를 담습니다.

주일 학교가 보존할 수 있는 값진 보물 중에는 교회 회원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새로 연약한 간증을 갖고 오는 사람들, 오랜 기간이 흐른 끝에 새롭게 간증을 되찾은 사람들, 계속해서 자신의 간증을 키워 가는 사람들이 주일 학교에 참석하고 돌아갈 때는 보다 함양된 영성과 주님과 그분의 교회를 믿는 더 큰 신앙과 충실한 복음 봉사를 하는 일에 인내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지도자와 교사로서 갖게 되는 기회입니다. 복음을 나누고 우리의 노고가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경험 중에 가

장 숭고한 것입니다. 간증은 보물입니다. 다음과 같이 행함으로써 그러한 간증을 주의 깊게 돌보도록 합시다.

- 확고한 간증을 갖지 못해 갈등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공과를 잘 준비한다.

- 성신의 감동을 받았을 때는 힘있게 우리의 간증을 전한다.

-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반원들을 참여시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를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사 그들이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 가운데 하나는 이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고 그에 대한 간증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힝클리 대관장 세계의 현안을 다루는 포럼에서 연설

5월 13일에 캘리포니아 주,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린 World Affairs Council에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우리가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가르치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기회를 제공한다고 연설했다.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것으로 희망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포럼에는 약 2,300여명이 참석했는데,

그중 거의 반이 다른 종교를 갖고 있었다. 또한 포럼에는 정치인과 교육자들과 19개 대사관에서 온 외교관들이 함께 자리를 했다. 그 자리에서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다. “미개발 국가에는 비록 배울 능력은 가졌지만 자신을 발전시킬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남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도움 없이는 결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일부 젊은이들을 돕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대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들 나라에서 우리가 신학 연구원이라 부르는 기관을 운영합니다. 이곳에서 젊은이들은 함께 공부하고 우정을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고, 사회에서 영예와 존경의 자리를 차지하며, 그들이 살고 있는 국가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그들을 엄매고 있는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전세계적으로 미치는 또 다른 선한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리는 이미 소액 대부 사업을 착수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은 100달러, 또는 200이나 300달러가 그들의 장래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 소액을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출만 이루어진다면, 이 젊은이들은 기업가가 되어 자신들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조상 대대로 족쇄가 되어온 결박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가난에 있는 빵집에서 온두라스에 있는 목재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전에는 결코 꿈꿔 보지도 못했던 기술을 배우고 생활 수준을 전에는 감히 희망조차 갖지 못했던 정도의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힝클리 대관장은 전세계적인 재난 원조 노력에 대해 설명하는 중에 다른 원조 기관



사진 촬영: 로렌스 처치 뉴스 사진 제공

불가리아에서 열린 청소년 대회에 모인 참석자들

들과 함께 아프리카, 멕시코, 방글라데시, 중국, 보스니아, 북한, 중미 등을 돕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헝클리 대관장은 최근 비극적인 코소보 사태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는 그 즉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돕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 주 월요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려해 보았습니다. 화요일에 우리는 그것을 실행하도록 결정하고, 솔트레이크 시티 복지 광장에서 식품 상자를 모았으며, 수요일에 대형 화물 비행기에 물품을 싣고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목요일에도 계속해서 비행하였습니다. 금요일에 물품을 하역하고 그 물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필요 사항이 생긴다면, 우리는 관료주의나 형식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끔찍한 비탄에 잠긴 나라에서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은 수천 명의 불행한 사람들의 삶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헝클리 대관장은 선교사들이 그들의 모국에 선교사로 갈 수 있도록 비자를 내준 정부 관리들의 호의에 감사를 표명했다. "우리가 소망하는 바는 어느 곳에서나 악한 사람을 선하게 만들고 선한 사람을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든 대문을 통해 들어갑니다. 우리의 대표자들은 어느 나라로 가든, 그 나라의 국법을 존중하며 사람들에게 선풍한 시민이 되도록 가르칩니다." □

상호부조회가 전 이집트 대통령 영부인을 표창함

줄리 독스타트

4월 23일 상호부조회에서는 전 이집트 대통령 영부인인 장 사다트 여사의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한 인도주의 활동을 치하하여 표창했다. 그녀는 4월 22일 브리검 영 대학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유타에 머물렀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와 상호부조회 회장단 자매들은 솔트레이크시티 요셉 스미스 기념관에서 가진 오찬에서 전 이집트 대통령이었던 왕와르 사다트의 미망인 사다트 여사와 그녀의 수행원들을 영접했다.

지역 매스컴과 함께 한 자리에서 홀랜드 장로는 사다트 여사에게 그녀의 가족 역사의 기원과 목각 받침에 첫걸음이라고 새겨 넣은 자기 인물상을 증정했다. 이 인물상은 엄마로부터 아빠에게로 걸음을 옮기는 어린 여아의 모습이 담겨있다. 상호부조회 본부 회장단의 제1보좌인 버지니아 유젠슨은 전 세계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공헌한 그녀의 노고를 기리는 상호부조회 증서를 증정했다.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제2보좌인 세리엘 듀 자매는 사다트 여사에게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의 부인인 마조리 피 헝클리 자매의 일생을 그린 책 한 권과 상호부조회 상징

을 담은 마호가니 상자 하나를 선사했다. (상호부조회 본부 회장인 메리 엘런 더블류스무트 자매는 임무 수행차 태평양 지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사다트 여사가 약 6개월전에 교회 본부를 방문하고 두 번째 가진 방문이다. □

처치 뉴스 기사 제공, 1999년 5월 22일

불가리아 말일성도 청소년 대회

100명이 넘는 불가리아 말일성도 청소년들이 최근에 불가리아에서 처음 가진 청소년 대회에 참석했다. **의를 선택하라**는 주제로 3일간 모임을 가졌다. 불가리아 소피아 선교부장 게리 스티븐과 그의 아내의 지시에 따라, 청소년들은 예절, 음악, 미디어, 요리하기 등의 워크숍에 참석하고, 게임을 즐기고, 재능 발표에 참여했다. 한 댄스 그룹이 불가리아 민속춤을 추었고, 청소년들은 미국 포크 및 라인 댄스를 배웠다. 소피아 지방부의 조지 테르멘지예프 지방부장의 감리 하에 성찬 간증 모임을 갖고 대회를 마쳤다. □

2000년 세계 청년 축제

내년에 교회의 청년들은 세계 청년 축제에 참가하게 됩니다. 모두에게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모사이아서 18:9)라고 권고하는 축제입니다. 이 연중 행사를 위한 자세한 유의 사항은 따로 우편을 통해 신권 지도자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

“폐허의 땅에 비친 한줄기 빛이 되어”



김호직 박사와 가족(왼쪽 위부터 신환, 태환, 왼쪽 아래부터 정숙, 박필근 자매, 김호직 박사, 영숙)

지난 8월 31일 화요일 저녁 7시, 동대문 스테이크 용두 와드에서 한국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김호직 박사의 40주기 추모 모임이 있었다.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과 지역 관리 역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 박사의 장남인 김신환 형제를 비롯한 가족 소개와 함께 김신환 형제의 “주기도문” 독창이 있었으며, 말씀 순서에서 정대관 형제와 한인상 성전장은 젊은 시절의 김 박사와 함께 했던 경험에 대해 말씀했다.

또한 브라운 장로는 고인이 돌아가시기 직전부터 장례식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 분의 모범에 따라 우리는 순종과 기도, 신앙으로 생활해야 한다고 말씀했다. 마지막으로 캔드릭 장로는 봉사할 위대한 영으로 준비하고 훈련받은 고인의 생애와, 가족을 사랑하고 ‘네 양을 먹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충실했으며 순종을 강조했던 고인의 모습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김 박사는 장막 저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며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후 4시부터는 캔드릭 장로를 비롯한 40여 명의 회원들이 망우리 공원 묘역에 있는 김호직 박사의 묘소를 참배했다.

리아호나 교회 소식에서는 서거 40주년을 맞이하여 김호직 박사의 일대기를 조망해 보고,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내용으로 추모 모임에서 자신이 기록한 일지를 근거로 김호직 박사의 서거와 장례식을 묘사한 브라운 장로의 말씀과, 최근에 김 박사가 자신에게 침례를 준 우드 형제에게 보냈던 서신의 내용 일부를 역시 묘소 참배시 말씀 시간에 인용한 고원용 장로의 말씀을 소개한다. 개척자로서 많은 모범과 사랑을 통해 성도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던 김호직 박사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1. 일대기

김호직 박사는 1905년 4월 16일 평안북도 벽동군에서 향교 교장의 2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는 서울 농대의 전신인 수원 농고를 수석 졸업하고 전주에 있는 신흥 고보 영어 교사로 재직하면서 당시 학교 교감의 여동생과 만나 결혼하게 된다. 결혼 후 일본 동북 제대에서 교수의 꿈을 안고 수학했고, 숙명 여전(숙명 여자 대

학교의 전신) 교장으로 재직하던 중, 이승만 대통령의 제의를 받고 영양학 분야의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 1949년 11월 도미, 뉴욕 코넬(Cornell) 대학에 입학했다.

김호직 박사는 미국에서 지낸 기간 동안 인생의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함께 연구실을 사용하던 대학원생인 올리버 웨이먼(Oliver Wayman)에게서 그는 남다른 점을 발견했는데, 술과 담배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항상 바른 말을 사용했으며 남보다 일과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에게 왜 그런 생활을 하는지 물었고, 그에게서

물론경을 받아 처음으로 회복된 복음을 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되었다.

김 박사는 1951년 7월 29일, 요셉 스미스가 침례받았던 사스케하나 강에서 한국인 최초로 침례를 받았는데, 이때 그는 물에서 나오자마자 한 음성을 들었다. “네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그에게 생명처럼 자리잡은 말씀이 되었고, 평생 동안 한국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이 말씀을 실천했다.

김 박사는 3년 반만에 박사 학위를 받고 전쟁 중이던 1952년 임시 수도인 부산으로 귀국하였다. 그는 교육계에 종사하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말은 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었다. 후에 그는 홍익 대학교 총장을 지냈고, 서울시 교육 위원회 부위원장장이 되었으며, 문교부 차관에 임명되었다. 그의 보증으로 교회는 기적적으로 나라의 공식 승인을 받았으며,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로 인해 그의 명성을 잃을 뻔 한 위험에 처했는데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김 박사는 온유한 가운데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 인자했지만 강직했으며, 남들을 즐겁게 해 주었다. 문교부 차관을 지낼 당시 어느 주일날, 김 박사가 주일학교 공과를 가르치고 있을 때 두 사람이 찾아와 이승만 대통령이 즉시 만나자고 한다는 말을 전했다. 그러나 김 박사는 수업이 끝나면 가겠다고 말하며 그들을 그냥 보냈다. 불의를 보면 그냥 지나가지 않고 무섭게 꾸짖지만, 나이 어린 선교사들에게 쏟은 정성은 대단했으며 항상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돌봐 주었다.

그는 서울시 교육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시 회의 도중 교회

압으로 쓰러져서 3일만인 1959년 8월 31일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임종했다. 김호직 박사는 회원으로 8년밖에 살지 못했으나 한국의 교회에 끼친 그의 영향력은 측량할 길이 없다. 그는 한국에 참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과 봉사의 모범으로써 빛을 비춰 주었고, 아직도 그 빛은 꺼지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의 초기 말일성도, 비디오 테이프 온 나라에 기를 세우고)

2. 김호직 박사 돌아가시던 날



엘 에드워드 브라운 장로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1보좌

1959년 8월 29일 새벽 2시 30분에 김정숙 자매가 삼청동에 있던 선교사 숙소의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다. 김 자매는 다급한 목소리로 자신의 부친인 김호직 박사가 병원에 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잭 켄킨스 장로와 저는 급히 옷을 입고 김 자매와 함께 병원으로 곧장 갔습니다.

김 박사는 인도로 장기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자마자 숨쉴 틈도 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전날 밤에도 그 분은 서울 교육 위원회 모임에 참석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다른 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격론을 벌였습니다. 그 분은 교육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모임이 계속 진행되던 오후 6

시 30분 경에 심장 마비를 일으켜 위중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병원 입원실에 들어선 우리는 그 분의 맥박이 약하게 뛰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그 분께 병자 축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저는 김 박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하늘 나라로 돌아가게 되리라는 명확한 영적 느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교회에 가입한 첫번째 교회 회원인 그 분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가장 고귀한 영들에 속한 분이었음이 틀림없으며, 조용한 아침의 나라와 그 백성에게 아담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교리와 성약 138편 55~56절이 김 박사를 적절하게 잘 나타내는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축복을 하고 난 후에 김 박사는 조금 차도를 보였습니다. 레이 하킨스 장로와 저와 교회 회원 여러 명과 가족들이 병원에서 그 날

과 그 다음날 저녁까지 머물렀습니다. 아직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곧 신앙의 시련을 겪게 될 이 얼마 되지 않는 어린 성도들이 보여 준 신앙과 염려는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김 박사는 아직 너무도 어리고 미숙한 어린 양떼들이 우리 모두가 인도를 받고자 바라보았던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후에 우리는 교리와 성약 35편 27절에서 다음과 같은 위안을 주는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아, 두려워 말라. 내가 올 때까지 왕국은 네 것이니라.”

김 박사의 두 딸은, 그러한 시련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어렸지만, 커다란 용기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들의 부친이 그들과 나눈 훌륭한 가르침을 통해 견뎌 내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8월 30일 아침 8시에 하킨스 장로와 저는 삼청동에 있는 집으

로 돌아가 약 4시간 가량 잠을 잤습니다. 우리는 샤워를 하고 병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김 박사의 병세가 약간 호전되는 기미를 보였지만 의식을 회복하지는 못하셨습니다. 어린 성도들이 자신들의 고결한 지도자가 회복되기를 희망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병원에서의 세 번째 밤인 그날 밤도 그 곳에서 지새웠습니다. 8월 31일 아침에 하킨스 장로와 저는 의사로부터 김 박사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막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전화 벨이 울렸

습니다. 우리는 그 말, 우리가 전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그 말을 들었습니다. 김 박사는 9시 30분에 운명하셨습니다. 우리들의 훌륭한 김 박사가 주님의 품안에 안기신 것입니다.

김 박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다음 임무는 교리와 성약 138편 54절에 나온 말씀으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김 박사가] 이 세상을 떠나, 회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을 통한 구속의 복음을 죽은 자들의 영들이 거하는 광대한 세계에서 계속해서 전파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장막의 저편에서 한국인의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업을 관리하는 특별한 지도자 부름과 함께 먼저 저 세상으로 간 아들 익환을 만나 포옹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으리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김호직 형제는 아시아의 진주입니다.” —1954년 9월 한국을 방문한 해롤드 비 리 대관장과 함께

김 박사님이 돌아가신 후, 가족들과 친구들과 당시의 교회 회원들이 김 박사님의 가정과 그분의 사랑하는 미망인, 박필근 자매에게 관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박 자매님은 그 당시 아직 교회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날 아침 저는 한국 공직자들을 만나 김 박사님의 장례식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서울 시청에 가야 했는데, 면도를 하거나 씻을 기회도 없었을 뿐더러 제 옷은 깨끗하지 않았고 주름져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매우 어린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방에 안내되어 들어갔는데, 30명 가량의 고위 공직자인 듯한 분들이 그 곳에 있습니다. 그들이 저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표로 소개했을 때, 저는 매우 난처했고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이 어린 청년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궁금합니다.

김 박사의 처남이었던 도지사께서 장례식이 교회의 방식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서울 시장이 장례 위원회 의장, 그리고 교육 위원회의 대표와 제가 부의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 후에 박 도지사께서 제게 기사와 함께 자신의 차를 빌려 주셨습니다. 저는 삼청동 집으로 돌아와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제가 교회 대표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을 준비하는 며칠 동안 새롭게 흥미롭고 훌륭한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명망이 높고 고위 직위를 가진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김 박사님에 대한 아주 감명 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모든 분들이 김 박사님에게 깊은 존경심을 품고 있었으며 김 박사님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분들은 모두가 교회에 참석하라는 권고를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김 박사님과 사도 바울은 모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로마서 1:16)라는 증거를 기꺼이 나타내 보이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훌륭한 분은 용기와 겸손의 뛰어난 표상이었습니다. 9월 4일 금요일에 장례식이 행해졌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염려로 매우 불안해 하였습니다. 수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장례식으로 가기 위해 버스 두 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하킨스 장로와 저는 김 박사님이 교수로 재직하셨던 대학교의 총장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갔습니다. 교육 위원회 의장과 다른 관료들, 가족들, 친지들이 뒤따라 왔습니다.

연도를 따라 방송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기록을 하면서 그 장례식의 이모저모를 취재했습니다.

장례식은 김 박사님의 출신 대학교 옆에 있던 큰 공설 운동장에서 행해졌습니다. 한국 육군 군악대가 그곳에 도열해 있었으며, 그곳에 주요 관료들이 많이 참석했기 때문에 5개의 경찰 관할 구역 중 3개가 경계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한국에 있던 교회 회원 수는 300여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부터 가난한 사람까지 각 계층의 사람들을 뵈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김 박사님이 널리 존경받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홍병식 형제님이 모임을 사회했습니다. 그 장례식은 시종 일관 물론 방식의 장례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김 박사님이 원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이서구 형제님이 개회 기도를 했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교회 합창단이 그들 마음에서 울려 나오는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김 박사님의 작은 양떼에서 울려 나오는 추모곡이었습니다.

김 박사님이 간 자리에 남겨진 어린 교회들을 돌보는 어린 지도자였던 저희 선교사들, 곧 레이 하킨스, 루론 포터, 클라인 캠벨, 그리고 제가 4중창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희는 겨우 20살을 갓 넘긴 청년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리와 성약 1편 19~23절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참으로 이 한국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런 후에 서울 시장을 비롯한 4명의 명사들이 한국에 미친 김 박사님의 위대한 공헌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가르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되었던 제 말씀을 마친 후에, 이호남 형제님이 폐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모든 사람들이 나아와 김 박사와 유가족들에게 고별의 인사를 나눴습니다. 유가족은 그 인사가 진행되는 1시간 30분 동안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후 차와 버스의 긴 행렬이 묘지로 향했습니다. 김 박사님의 학교 제자들이 얼마간 행렬에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경찰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언덕 위에 묘지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풍습에 따라 함께 식사한 후에 무덤을 헌납했습니다. 누가 헌납 기도를 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가 끝난 후, 저는 조문객과 가족과 친구들이 풍습에 따라 한 삽씩 흙을 떠 김 박사님의 관 위에 뿌리라는 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특히 제게 더욱 그러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러한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사랑하는 김 박사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운데 한국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후 우리는 삼청동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집은 아직도 그때

로 남아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날이었습니
다. 하지만 기쁜 날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의 고귀한 아들이 용감하게 끝까지 견디 높
은 곳에 있는 해의 왕국의 본향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자신의 가족인 아내와 세 아들과
소중한 두 딸, 정숙과 영숙이 돌아오기를 기
다리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저는 선교사의 부름
에서 해임되기 직전에 김 박사님의 미망인
인 박 자매님을 침례주는 특별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박 자매님은 남은 일생 동안
교회의 충실한 자매로 생활하시다 남편과
더 이상 헤어지지 않기 위해 저 세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신 김 호직 박사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따라가기를 소망합
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진척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인간의 사
업이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
습니다. 김 박사는 북한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곳에 있는 하
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를 통
해 주님께서 북한에 복음이 전파될 길을 열어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김 박사님의 장례식에 대해 적은 저의 일지에서 마지막에 다음
과 같이 적어 두었습니다.

“김 박사님은 돌아가신 후에도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복
음을 전파하셨다.”

3. “한국에서 교회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고원용 장로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었고, 이 땅에 교회의 기초를 닦으시고
성도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시며 모범을 보이셨던 고인의 영전에 엄
숙한 마음으로 감사와 존경을 바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은 1905년에 출생하셔서 1959년에 돌아가셔서 54년의 너
무나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1951년 7월 29일 침례를 받으신 후
불과 8년 동안 회원으로 생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그
분은 한국에 교회가 세워지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저는 1962년에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김 박사님을 개인적으로
뵈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남기시고 떠난 자리가 너무나 크
다는 것을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김 박사의 묘소는 서울시의 망우리
묘역에 있다.

안되어 어떤 큰 모임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어른들 몇 분이 의논하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모임 장소를 빌려야 되는데...”

“전에 모임을 가졌던 그 장소를 빌리면 돼
잖아”

“그쪽에 연락을 했는데 못 빌려준대”

“아니, 왜?”

“저번에는 김호직 박사님이 계셨으니까 빌
려 주었지만 이제는 곤란하대”

이와같이 김 박사님은 초기 한국 교회를 이
땅에 정착시키는 데 그분의 사회적 지위와
학문적 업적을 통해 큰 도움을 주셨던 분이니

다.

저는 특히 김 박사님에게 처음으로 교회를 소개한 올리버 웨이
먼(Oliver Wayman)형제로부터 부탁을 받아 김 박사님에게 복음
을 가르치고, 침례를 받도록 도와주셨던 돈 시 우드(Don C. Wood)
형제에게서 받은 자료와 그 분과 김 박사님 사이에 주고 받았던 편
지 속에서 김 박사님의 교회와 가족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간증을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우드 형제는 김 박사님이 머물렀던 코넬 대학 지역의 세네카 지
방부장단의 보좌로, 김 박사에게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한 웨
이먼 형제로부터 부탁을 받아 김 박사를 교회 모임에 소개하였고,
복음 토론을 하였고, 침례식을 집행하신 분입니다. 실제 침례는 당
시 세네카 지방부의 지방부장이셨던 조셉 에이 다이(Joseph A.
Dye) 부장께서 하였고 확인 안수는 우드 형제가 했습니다. 1951
년말 김 박사께서는 귀국하신 후 1952년부터 1958년 까지 매년 최
소 한 차례 이상 우드 형제에게 편지를 보내셔서 교회의 발전 상황
과 가족 관계 및 개인의 근황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이 편지들을 읽으면서 그 분이 겪으셨던 특별한 영적인 경
험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 박사님은 미국에 유학을 가시기
전에 한국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매
우 특이한 일을 하셨습니다. 살고 계셨던 집을 팔고, 자동차 및 모
든 소유도 팔아 가족을 이사시키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현금
을 주셨습니다. 가족들이 다 함께 유학을 가는 것이 아니고 혼자 가
시면서 이렇게 소유를 파시고 현금으로 바꾸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도착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한국에 전쟁이 일어
나서 전에 살고 계셨던 집과 모든 소유가 파괴되었으나 가족들은
안전하고 적어도 살아갈 돈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비슷한 일이 1953년 편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귀국하신 후
부산에 사시면서 가족들을 먼저 서울로 보내기로 하고, 모든 가구를

청주 스테이크 제천 지부

제천 지부는 1982년 6월 11일 청주 스테이크 소속의 지부로 출발했다. 그후 1988년 4월 1일 원주 지방부로 소속이 바뀌었다가 1996년 9월 다시 청주 스테이크로 환원되었다. 이러한 많은 변화의 역사를 겪으며 오늘에 이른 제천 지부의 주위에서 16년이란 세월을 회원들과 함께 한 기와 건물과 주위의 은행나무, 등나무 등의 여러 정원수들은 말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그 동안의 역사를 말해주는 산 증인이 되었으며, 이제 새로운 건물이 세워짐에 따라 이 건물과 정원수들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1. 제천 지부의 발전

제천 지부의 오래된 기와 건물은 예배나 각종 모임을 진행하기에 불편하고, 건물의 분위기도 처음 방문하는 구도자들에게는 낯설었다. 그래서 지난 17년간 회원들은 표준 건물을 짓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왔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선 지역의 특성상 이곳은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어서, 오랫동안 이곳에 애정을 갖고 뿌리를 내릴 만한 회원들이 부족했다. 그러한 사정을 반영이라도 하듯 이곳은 오랫동안 회원 지부장이 부름을 받지 못하고 선교사들이 계속 지부장을 맡아 왔다. 그런 와중 처음으로 회원으로서 지부장 부름을 받은 김성환 형제로 인해 이곳에 잠시 활력을 주는 듯 했지만 김 형제도 직장 관계로 천안으로 떠나게 되었다. 제천은 다시 회원 지부장 부재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으나 1997년 10월 당시 고등 평의원이었던 배운호 형제가 파견 지부장으로 봉사하게 되었다. 배운호 지부장은 이 지역의 어려운 여건과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몇몇 성도들이 지니고 있는 강한 신앙의 불씨를 발견했다. 배운호 형제는 자주 성전을 방문하여 제천 지부와 그 회원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다. 또한 제천 지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형제들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성전에 적어 내기도 했다. 이런 노력과 기도의 응답인지 98년 1월에는 그의 동생인 배철호 형제(현 제천 지부장) 가족이 이사오게 되었고, 그해 8월에는 어윤천 형제(현 지부장단 제2보좌)가 이사왔으며, 9월에는 정진용 형제(현 장로 정원회 회장) 가족이 이사를 왔다. 모두 15명의 형제, 자매였다.

이들 중 어윤천 형제는 직장 인사 이동으로 전출을 가게 되었을 때 스테이크 부장과의 접견에서 강릉이나 제천으로 가게 되는데, 자신은 선교 사업의 추억이 있는 강릉으로 가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스테이크 부장은 제천으로 가서 제천 지부에 힘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고, 결국 2지망인 제천으로 발령받게 되었다고 한다. 어윤천 형제가 제천으로 오면서 그의 조카 두 명도 같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지부 청년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또한 정진용 형제는 다섯

서울로 옮긴 후 한 달 만에 부산 집이 불이 나 타버렸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 인생에서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나는 정직한 기도는 항상 응답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기쁘고 행복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 박사님은 편지에서 특별히 부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애뜻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 돌아오신 후 학계, 행정부 등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으나 전쟁으로 인한 나라 전체의 어려운 사정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의 수입은 생활비의 12분의 1에 불과하고 부인이 부족분을 메우신다고 하시면서, "나의 아내는 매우 부지런하고 정직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실제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물건을 사고 팔며 일합니다. 그녀는 일년 내내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 그는 자녀들이 침례 받은 소식을 전하면서 크게 기뻐하시는 자상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복음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 편지에서, "나는 지상에 회복된 참된 교회인 이 훌륭한 교회를 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매년 편지에서 교회의 발전 모습을 전하면서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가 보낸 마지막 편지인 1958년 1월 편지에서, "한국에서 교회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귀국한 6년 전에는 한 사람의 회원도 없었는데 지금은 140명이 넘는 한국인이 개종을 하였습니다. 현재 지부가 부산에 한 곳, 서울에 두 곳 등 모두 세 곳에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지부마다 약 100명의 회원이 모임을 참석하고 있습니다. 열 명의 미국 선교사가 있고 물문경을 제가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지방부장으로 봉사하고 있고 동시에 주일학교 교사입니다."라고 교회의 발전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 박사님, 박사님이 돌아가신 지 40년이 지난 지금 한국에서 교회는 1개의 지방부가 17개의 스테이크와 6개의 지방부로, 3개의 지부가 176개의 와드와 지부로, 140명의 회원이 7만명의 회원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세워졌습니다. 교리와 성약 65편 2절의 "복음이 땅끝까지 굴러퍼지며... 드디어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우리라."라는 말씀처럼 이제 김 박사님의 그 위대한 개척자로서의 회생과 헌신으로 한국의 방방 곡곡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김 박사님이 우리에게 보여 주셨던 훌륭한 가르침과 모범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면서 이 지상, 특히 한국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열심히 일하는 우리의 모습을 장막 저편에서 자랑스럽게 보실 수 있도록 우리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김 박사님의 영전에서 다짐합니다. 김 박사님, 부활의 날에 영광 육이 다시 기쁘게 결합될 때까지 편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



제천지부 회원들의 모습



회원인 자녀들의 모범으로 인해 아버지가 침례 받은 김영운 형제 가족

자녀와 함께 인근 군으로 발령받아 오게 되었는데, 인사 발령 순위에서 후순위였기에 제천으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선순위인 사람이 포기하는 바람에 극적으로 제천으로 오게 되었다. 제천 지부의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보이지 않는 힘과 영향력이 행사되었음을 느낀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스테이크의 신권 지도자들은 어려운 여건하에 있던 제천 지역의 교회를 위해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최근에 이곳 제천에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선 한 두 가족이 중심이 되어 지부 회원들의 단합이 이루어지고, 회원들 간에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더욱 굳건해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청녀들이 침례의 물가로 오게 되었고, 일부만 회원인 가족들의 모범으로 인해 나머지 가족들이 침례를 받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제천 지부의 회원들은 이제 여기저기로 소속을 옮기며 겪었던 변화와 불안한 마음을 잊었다. 대신 제천 지역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 하나가 되어 노력하자는 열의를 불태우고 있다.

2. 제천 지부 회원들의 목표와 성과

제천은 충북 북부와 강원도 남부 및 경상북도 북부 일원의 지리적, 교통상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여건을 바탕으로 제천 지부 회원들은 제천 지부가 와드가 되고 스테이크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다.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회원들은 지부 대회를 계기로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그 첫번째 목표는 현재 성찬식 평균 참석 인원인 40여 명을 배가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가정 복음 교육, 방문 교육을 통해 지부 회원들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했다. 또한 선교 사업과 활동이 저조한 회원의 재활동화를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회원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부 선교 책임자인 배기수 형제는 날짜 정하기 프로그램을 회원들에게 실시하고 있으며, 각 회원들은 이 프로그램에 따라 구도자를 소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장로 정원회에서는 재활동 촉진과 기존 회원들의 우정 증진을 위해 한달에 한번씩 시사 모임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회원들은 주위에서 복음을 전할 친구나 이웃 및 재활동화시킬 활동이 저조한 회원을 찾고 가르치기 위해 그들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지부 대

회를 준비하기 위해 선교 전시회를 가졌는데 미리 지역 광고지에 광고를 내고 전단지 돌리는 예비 작업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시회를 가져 좋은 경험과 간증을 쌓을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짧은 전시회 기간이었지만 여러 방문자들이 다녀갔으며 지부 대회에도 초대할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회원들은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었으며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함께 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회원들은 선교 전시회에 참석하면서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터득할 수 있었다. 제천 지부에서는 이후로 소규모의 전시회를 한 달에 한 번씩 갖고 큰 전시회는 분기에 한 번씩 갖는 것을 지부 목표로 세웠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가운데 회원들은 새로운 청년들의 침례와 전입 및 만년 구도자의 침례 등 노력의 성과를 눈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는 새로운 회원들은 지부에서 여러 부름을 맡아 열심히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3. 제천 지부의 미래

제천 지부의 기사를 정리하면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었다. 개인적으로 제천 지역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적은 것도 문제가 되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료가 될 수 있는 기록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소속이 여러 번 변경되다 보니 청주 스테이크나 원주 지방부에서도 제천지역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정리된 기록이 없었고, 몇몇 개인이 갖고 있는 기억이나 기록에 의존해서 기사를 작성해야 했다. 하지만 기사를 정리하면서 나누었던 그곳 회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이 갖고 있는 강한 소망과 신앙의 힘, 그리고 이 지역의 역사가 교회 역사의 큰 한부분을 장식하게 될 미래를 느낄 수 있게 해 주었다.

제천의 회원들은 예전에 없던 큰 소망과 즐거움과 사랑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 이런 제천 지부 회원들의 기도와 노력이 그치지 않는다면 이 소망은 머지 않은 장래에 또한 그들 앞에 기적같이 임할 것이다. 이제 제천은 충북의 어느 작은 도시가 아니라, 회원들의 의로움과 신앙으로 만들어진 작은 시온이 되어 가고 있다. (이은숙) □



특집 기사

인터넷과 신앙 생활

교회 공식 홈페이지(<http://www.ldschurch.org>)

이제 21세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현대는 각종 문명의 이기가 등장하여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며 수많은 정보가 매일 간편하고도 신속하게 개인에게 전달된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교회는 공식적인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E 메일을 통해 서로의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일반적인 일이 되었다. 리아호나 교회 소식에서는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 사이트 및 개인 홈페이지에 대해 소개한다.

교회 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는 <http://www.ldschurch.org>이며, 교회 스테이크나 와드/지부에서 별도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는 셀 수 없이 많다.

교회의 공식 웹 사이트에 실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회 홈페이지

주소: <http://www.ldschurch.org>

— 무료로 운영됨

교회와 관련된 모든 공식 자료가 소개되어 있다.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를 비롯하여 독어, 불어, 스페인어, 이탈리아 등 모두 19개나 된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말을 비롯 동양권 언어는 아직 사용되고 있지 않으나, 머지 않은 장래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 기본 믿음

먼저 첫번째 장인 기본 믿음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 — 물문경과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간증이 소개되어 있다.

■ 가족 역사 자원

두번째 장인 가족 역사 자원란에는 '가족 역사, 어떻게 시작하나요'를 항목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고 영원한 가족(Together Forever)이라는 비디오 테이프를 주문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또 가족 역사 기록과 관련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소개하는 한편, 가족 찾기 사이트를 설명하고 있다.

■ 회원 자료

세번째 장인 회원 자료란에는 '97년 4월 연차 대회 이후 모든 연사들의 연설문이 자료 올라와 있고 복음 원리의 모든 내용이 올려져 있으며, 서부 개척자 이야기란에는 초창기 교회 회원들의 솔트레이크까지의 긴 여정이 지도와 함께 잘 소개되고 있어 신앙의 선조들의 살아 있는 삶의 현장을 살펴볼 수 있다. 또 가족 안내서가 충실히 소개되어 있다.

■ 언론 자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인 언론 자료란에는 구체적인 통계학 자료들이 소개되어 있다. 먼저 사이트가 운영된 이후 교회 본부가 발표한 공식 자료들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 또 특별 보고서란에는 작년 9월 8일 미국 전역으로 생방송된 래리 킹 쇼에서 힐러리 대관장이 1시간 동안 인터뷰한 내용의 초록이 그대로 소개되어 있다.

또한 교회 지도자들의 각종 연설 내용의 원고가 있으며, 언론 매체용 교회 통계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데 현재는 '98년말까지의 자료가 정리되어 있다. 또 가족 찾기 사이트에 대한 자료가 정리되어 있다.

이 통계 자료에 의하면 교회는 작년 말 현재 161개국 나라에 10,354,241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자가 전체 회원의 53%를 차지하고 있고, 전세계 교회 단위 조직은 25,551개이고 교회 책자는 175개 언어로 정리되어 있으며, 1830년 이래 배포된 물문경은 9,370만권이다.

회원수와 관련 미국내에는 5,023,158명이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는 645,073명의 회

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6만 8천명이 회원으로 있으며 언어 기준으로 보면 전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많은 회원들이 한국말을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다. 또 성전 수, 선교사 수, 교회 교육 제도, 역사, 조직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2. 가족 기록 찾기 사이트

주소: <http://www.familysearch.org>

— 무료로 운영됨

가계도 등의 기록을 통해 조상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지난 5월부터 인터넷 족보 서비스를 실시한 교회는 보유중인 전세계 2백억명 이상의 인명 자료 중 일부를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공개했다. 첫번째로 4억명의 자료가 공개되었는데 연말까지 추가로 2억명의 자료가 공개된다. 모든 인명 자료는 가계도를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어 3대 내지 4대까지의 직계 조상 명단만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가계도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어 있다. 현재는 영국 지역, 북미주 지역, 핀란드 지역의 조상들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어 있으나 연말까지 다른 지역의 기록들도 소개될 예정이다.(본 10월호 교회 소식 1~2쪽 참조)

3. 교회 소식 사이트

주소: <http://www.ldschurchnews.com>

—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됨

주간 신문으로 나오는 교회 소식(처치 뉴

스)의 사이트이다. 구성은 기사, 특집, 교리, 포럼, 관점 등 처치 뉴스와 같다.

4. 말일성도 인터넷 자료 사이트.

주소: <http://www.lds.npl.com>

— 무료로 운영됨

전세계 말일성도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관련 사이트가 잘 요약, 정리되어 있다. 선교사 시절 같이 봉사했던 선교사를 이곳을 통해 찾을 수도 있으며 교회 서적, 명승지 등 교회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쉽게 얻을 수도 있다.

개인 웹 사이트를 만들 때 교회의 이름이나 교회의 자료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인 웹 사이트에 대한 교회의 공식 정책은 없다. 다음은 공식 정책이 아니라 준수해야 할 일반 원칙이다.

1. 개인 웹 사이트는 명확하고 눈에 잘 띄는 문구로 이 사이트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교회의 교리나 정책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다. 웹 사이트의 이름 또한 교회 공식 웹 사이트라는 느낌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웹 사이트에 교회에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료를 사용할 때는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승락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교회 출판물 사용 승인자

↑ ↓

스테이크 부장

↑ ↓

관리 본부 대표

↑ ↓

지역(AREA) 고문 변호사

↑ ↓

교회 대표 고문 변호사

신청자는 6하 원칙에 따라 설명하여 승인을 받게 되며 교회의 모든 출판물은 (인쇄물, 영상물, 포스터 포함) 이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우리나라 현황

회원들의 많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회 정책에 따라 한국 교회 또는 각 지역의 공식 홈페이지는 없다. 그러나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꽤 있다. 야후(Yahoo)나 알타비스타(Altavista), 심마니 등의 검색 엔진을 통해 교회 이름으로 찾아보면 많게는 60여 건까지 검색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 교회 이름을 쓰거나 교회 자료를 쓸 때는 매우 유의해야 한다. (왼쪽 박스 기사 참조) (배동철) □

음악을 통한 지역 사회 봉사 수원 챔버 오케스트라

지난 1997년 7월에 음악의 아름다움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 아래 수원 챔버 오케스트라(단장:도부민)가 창단되었다.

현재 KBS 심포니, 코리안 심포니 등 국내 유수 오케스트라 및 대학 등에서 각자의 영역을 구축하며 활동하고 있는 전문 음악인들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기꺼이 희생하고 있다. 이들 중 교회 회원은 바이올린의 권영준 형제, 소프라노의 심은숙 자매, 피아노의 임영경 자매가 참여하고 있으며 첼로 연주자이자 단장인 도부민 형제는 수원 스테이크 올전 와드의 복음 교리반 교사로도 봉사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 수원 등에서 네 차례의 정기 연주회 및 다수의 작은 음악회를 성공리에 마친 바 있고, 1998년 5월 오페라 갈라 콘서트에 이어 해병대 사령부, 아주대 병원 초청 연주회를 통해 평소 예술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 음악을 선사하기도 해 이러한 노력은 수원 시장(심재덕)의 특별한 후원으로 이어졌고 경기 지역 각 신문과 수도권지인 조선일보에도 크게 소개되었다. 1999년에는 네 차례의 정기 연주회와 세 차례의 솔리스트 앙상블 콘서트가 있었다.

수원 스테이크에서는 수원 챔버 오케스트라를 초대해 지난 8월 28일에 회원 16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작은 음악회를 가졌다. 이날 음악회는 홍성목, 성두경, 이현정, 바리톤 심재완 등이 친숙한 세미 클래식과 성악을 위주로 진행했고, 마지막 앵콜 순서로 네 명의 성악가가 함께한 열창곡은 모든 회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모임 후 출연자들은 교회에서의 연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혔으며, 특히 회원들의 친절과 진지하게 관망하는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말을 전했다.

앞으로 챔버 오케스트라는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수원 챔버 소사이어티를 구성하고 후원 회원을 확정하는 등 체제 정비에 노력하고 또한 학교, 단체에서의 무료 공연과 청소년 음악회 등을 기획하여, 음악 인구의 고급화와 저변 확대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 봉사 활동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상호)

광주 스테이크

교육의 날 행사

지난 8월 21일 광주 신학원 주최로 교육의 날 행사가 있었다. 광주 신학원의 임종하 형제는 속죄에 대해, 조용현 형제는 복음에 있어서의 상호 의존 가치에 대해 말씀했고 서울 동 신학원의 조만구 형제는 복천년의 상태에 대해 전하면서 예언자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청소년을 위한 노년의 모임

“남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생활해서 남을 이끌어 주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8월 28일 광주 스테이크 센터에서



부산 서 지방부 대회



해운대 와드 전경

열린 청소년을 위한 노년의 모임에서 하 일 형제는 이렇게 말씀했다. 또한 조용현 형제는 교회에서는 표준에 입각한 다양하고 건전한 매체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한다고 말씀했고, 청소년을 위한 새 프로그램인 '힐라맨 2000 용사'와 다른 활동 모임 지원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부산 서 지방부

후반기 지방부 대회

지난 8월 21과 22일 대신 지부에서는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인 김종열 장로의 감리로 슬로버 부산 선교부장 내외를 비롯한 257명의 회원과 구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후반기 부산 서 지방부 대회가 열렸다. 토요일 신권 모임에서는 선교 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일요 총회에서 슬로버 부산 선교부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아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김종열 장로는 새 천년을 대비해서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여, 훌륭한 이웃이 되고, 안식일을 지키고, 지혜의 말씀 등 기본적인 계명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정춘영)

부산 스테이크

노년의 모임

부산 선교부에 새로 부임한 슬로버 선교부장 기족과 함께 한 노년의 모임이 지난 8월 29일 오후 7시 온천 와드에서 열렸다. 이 모임에서 슬로버 부장은 고도로 발달해 있는 정보 통신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의 말을 잘 듣고 있는지에 관해 질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

씀을 잘 듣는다면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간증했다. 또한 온천 와드 회원들이 준비한 합창 "유모레스크"와 "아름다운 구주"를 들었다. (이희숙)

해운대 와드 헌납식

지난 8월 8일 해운대 와드의 헌납식이 있었다. 이 날 모임에는 브라운 장로를 비롯해 2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초대 감독으로 안경일 형제가 부름 받았다.

서울 강서 스테이크

청소년 문화 및 체육제 행사

복음 안에서 맺어지는 올바른 건전한 사교 활동과 우정 모임을 통해 청소년들의 신앙과 간증이 커지도록 돕자는 길정권 스테이크 부장의 제언에 따라 지난 8월 14일, 21일, 28일 3주에 걸쳐 청소년 문화 및 체육제 행사가 개최되었다.

스테이크 내의 80여 명의 청소년과 고분들이 6개 대대로 각각 편성되어 피구, 농구, 미니 축구 등의 경기가 벌어졌고, 이벤트 행사로 각종 다양한 놀이와 게임이 제공되었을 뿐 아니라 합창 연습 및 발표 순서도 마련되어 청소년들의 영적 교양도 병행되었다. (정혜숙)

독신성인 대회

지난 8월 29일 일요일 새벽 6시 30분에 독신 성인들을 위한 대회가 "결혼"을 주제로 길정권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 하에 화곡 와드에서 개최되었다. 금년에 두 번째 갖는 이번 대회에서는 말일성도에게 있어서 "해의 왕국의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되었고, 특히 길정권 부장은 기도하는 가운데 배

우자를 선택할 것을 제안하였다. (천선희)

서울 북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자매들 자원 봉사 활동

서울 북 스테이크 상호부조회(회장 허민자)는 지난 5월부터 홍제동의 서부 노인 보호소에서 5개월째 평일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매주 4일간 와드, 지부별로 봉사 활동을 꾸준히 벌이고 있는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치매 노인들을 낮동안 돌보는 일을 돕고 있다. 회원들은 간식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팩 찜질 도와주기, 수건빨기, 손톱 발톱 깎아주기, 거실 및 화장실 청소하기, 운동 보조, 말벗 해주기, 집에 데려다 주기 등의 봉사 활동을 통해 이웃을 위해 일하는 것이 다만 하



강서 스테이크 독신성인 대회(위)와 청소년 행사(아래)





서울 서 신학 연구원 태버나를 축제



부평 와드 신바람 '99 실천 세미나

나눔을 위하여 일하는 것(모사이사서 2:17 참조)이라는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허민자 상호부조회 회장은 봉사 활동을 하면서 어머니를 더 공경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며 눈물을 글썽였으며, 서부 노인 보호소 측은 교회 회원들의 노고에 대해 특별히 고맙게 생각하고, 다른 단체에서 약속을 못 지킬 때 교회 회원들의 도움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수해때 회원들로부터 2주에 걸쳐 도움을 받은 금촌 지부 문홍식 형제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회원들의 참사랑을 느꼈다며 회원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했다. 그는 이번 봉사 활동으로 인해 수해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며 회원들의 작은 노력이 선한 영향력을 주었다고 간증했다. (배동철)

서울 서 신학 연구원

태버나를 축제

서울 서 신학 연구원 학생회에서는 8월 18일부터 21까지 4일 간 태버나를 축제를 열었다. 이 축제에서는 농구 대회, 카니발, 무도회 등이 열렸으며 축제 기간 동안 2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김태숙)

서울 영동 스테이크

여성 대회

서울 영동 스테이크는 8월 28일 오후 3시에 스테이크 내의 모든 자매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란 주제의 여성 대회를 가졌다. 이 대회에서 최귀열 고등 평의원은 교회 안에서의 상호부조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차종화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는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간증했다. (송원상)

순천 지방부

후반기 지방부 대회

순천 지방부 대회가 지난 8월 21, 22일 가타누마 장로의 감리하에 순천 지방부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순천, 여수, 여천, 광양 지부 회원 및 구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감리자인 가타누마 장로는 일요 총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마음에 희망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고, 경전을 읽으며, 성찬식에 참석하고, 십일조를 바치며, 부름에 봉사하고, 규칙적인 가정의 밤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봉률)

인천 스테이크

부평 와드 신바람 '99 실천 세미나 개최

지난 8월 28일 인천 스테이크 부평 와드 (감독 양홍규)에서는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큼을 기억하라" (교리와 성약 18:10)는 주제로 모든 역원 및 부부 회원을 대상으로 신바람 '99 실천 세미나를 개최했다.

1부에서 민혜기 서울 서 선교부장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말일성도가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 말씀했으며, 2부에서는 김영옥 형제가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식생활과 건강'에 대한 특강을 했다. (윤상근)

중부 신학 연구원

제1회 대학부 경전 퀴즈 대회

지난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중부 신학원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시도된 대학부 학생 대상 경전 퀴즈 대회가 열렸다. 신학원 개강을 알리고 참여율을 높이지는 취지에서 준비된 이번 대회는 대회 일주일 전 각 와드/지부별로 미리 이루어진 예선전을 통해 와드/지부에서 1명씩 본선 진출자를 가린 후, 이 날 본선에서 영광의 우승은 대전 스테이크 공주 와드의 이준우, 이철우 형제 팀이 차지했다. (이은숙)

바로잡습니다

지난 9월호 교회 소식에서 마산 스테이크 청소년 대회를 마산 스테이크와 부산 서 지방부 연합 청소년 대회로 정정합니다.

역원 변경

광주 스테이크

풍향 와드 감독: 오석중
(전임자: 윤영통)
목포 와드 감독: 이대성
(전임자: 최낙현)

전주 스테이크

노송 와드 감독: 김용록
(전임자: 김요안)

인천 스테이크

인천 농아 지부 지부장: 홍종점
(전임자: 길영권)